

행복실태조사로 시민 행복지수 높인다

전주시, 2020년 구축한 1000여명 시민패널 대상 조사 실시... 결과 반영 정책제언·세부사업 방안 도출

전주시가 시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측정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67개 항목의 전주형 행복지표를 통해 시민 행복 체감도를 조사하는 '전주시 행복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주형 행복지표를 개발했으며, 2020년 전주형 행복지표를 보완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왔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2020년 개편된 전주형 행복지표를 추가 보완 및 개정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확정하고, 2020년에 구축한 1000여 명의 시민패널을 대상으로 행복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사람의 행복도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초기와



전주시는 전주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67개 항목의 전주형 행복지표를 통해 시민 행복 체감도를 조사하는 '전주시 행복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현재 시민들의 행복도 변화를 비교·분석 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기

로 했다. 시는 행복에 대한 시민의 요구 및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인터뷰와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복실태조사 결과를 정량화하고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제언 및 세부사업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각 분야별 핵심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결과분석 및 정책연계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시민들이 행복도를 느끼는 정책은 확대 추진하고, 행복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2020년에 실시한 행복지수 조사로 전주시는 행복초점을 제정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행복영향평가를 통해 전주시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로 8년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행복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해외 초청작가인 다시마 세이조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폐막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서 다시마 세이조 작가와 만남 진행

전주시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을 끝으로 약 한 달 간 이어온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해외 초청작가인 다시마 세이조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지난 3일 개막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29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과 동네 책방에서 그림책 원화 전시, 작가와의 만남, 1인 극장 등 그림책과 만나는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풍부하고 독특한 색감과 거친 붓선으로 자연과 일상을 생명력 있게 표현하는 다시마 세이조 작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번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해외 초청 작가로 초대돼 그림책 원화 30점을 5월 한 달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1층에서 전시하기도 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작가와의 만남에서 다시마 세이조 작가는 '그림책과 다시마 세이조의 인생'을 주제로 전주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통역은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신간 '숨이와 꽃병어 토트'와 '염소 시즈카의 숙연한 하루'를 번역한 황진희 작가가 맡았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 독서대전 유

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현재 150여 권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이조 작가는 한·중·일 세 나라의 작가와 출판사가 모여 어린이들에게 참된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평화그림책 작업을 제안하고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전주시립도서관과 동네 책방에서 그림책 원화 전시, 작가와의 만남, 1인 극장 등 약 한 달 동안 그림책과 만나는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금암도서관에서 진행된 '다시마 세이조 작가 원화전'과 '이름이 작가 초대전'은 그림책 원화 전시와 전시 해설이 함께 이뤄져 행사기간 중 2만여 명이 찾았으며, 그림책 작가의 강연과 공연, 그림책 출판사 연계 프로그램에도 총 100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김윤수 전주시장은 "그림책은 치유와 성찰,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세대 공통의 책이다"면서 "이번 도서전이 미술과 문학의 만남을 통해 그림책이 가진 힘을 환기시키고, 책을 통한 도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만큼 앞으로 전주그림책도서전을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민의 날 ·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6주년' 기념행사

6월 3일 덕진공원에서 축하공연 · 전주시민대상 · 모범시민상 · 전주정신 확산 유공자 시상식 진행

전주시민의 날(단오날)을 맞아 전주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주정신 '꽃심'을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6월 3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 앞마당에서 '제64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여는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전주시민대상(8명) △모범시민상(4명) △전주정신 확산유공자(2명) 등 전주시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지난 2016년 선포된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은 전주시민들이 품고 있는 공통된 정신인 대동·공유·열공음·창신 등 4개의 정신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신으로, 올해 선포 6주년을 맞게 된다. 꽃심은 최명희 작가가 작품 '흔들'에서 쓴 것처럼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으로 짝을 띄워내는 강인한 힘을 의미한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제64회를 맞는 전주시민의 날과 전주정신 선포 6주년 기념행사가 전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전주정신의 우수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야호놀이터' 홍보 위한 유튜브 영상 공모

전주시, 6월 7일~9월 2일 이메일 접수

전주시가 도시 곳곳에 위치한 야호놀이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생태놀이터와 예술놀이터, 책놀이터 등 다양한 야호놀이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9월 2일까지 '야호놀이터'를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을 공모한다.

야호놀이터 대상지는 △야호 생태놀이터 2개소 △야호 생태·숲체험장 11개소 △야호 생태·유아숲체험원 5개소 △야호 예술·전통놀이터 2개소 △야호 책놀이터 7개소 등 27 곳이다.

희망자는 야호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등을 촬영한 1분 이내 분량의 해상도 1280X720픽셀 이상(HD급 이상) MP4 파일 형식의 영상을 제출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야호놀이터 누리집(www.jonju.go.kr/yaho)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 등 첨부 서류를 갖춰 이메일(CIFALS2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야호놀이터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아이놀이터과(063-281-536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창의성 △홍보 가능성 등 각

공모전 내무기준으로 평가한 뒤 선정결과를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야호놀이터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의 다양한 놀이터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전과 모험심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정된 작품들을 활용해 야호 놀이터를 전국에 홍보하고 관심도를 높여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접종 대상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주민이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주지역 위탁 의료기관 200여 개소에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감염된 후 기관지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으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폐렴구균 예방접종(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받을 경우에는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 접종만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한 번의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증의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접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전주대변역 향한 파트너 선택해 달라"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과 현 당국 속으로 나아가며 막바지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 후보는 30일 오전 7시 30분 서전 주아울렛 사거리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완대한방병원, 오후 5시 30분 이종리마당에서 유세를 펼치며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우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전주시가 대변역의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향한 대변역의 파트너로 우범기를 선택해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 후보는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와 소통하고 있다. 그는 '강한경제 전주대변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기재부 공직생활과 예산전문가의 강점을 부각하며 △기업유치, 산업역량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대안방직 터, 종합경기장 개발 조속 추진 △전주역 명품환승센터 조성 △관광도시로 전주 활성화 등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전북발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전주시민 압도적 지지 호소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는 30일 오전 11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후보는

"전주시민의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전주시장은 기호 2번이라고 전주시민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과 선거브로커 관련 의심을 받고 있는 후보는 잘못하면 재선거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집권당의 힘 있는 전주시장으로 디지털플랫폼 도

시, 첨단 4차산업의 선도도시로 전주 경제를 전국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김 후보는 "청년일자리 10만 개, 노인수당 100만 원, 장애인수당 100만 원으로 청년이 잘사는 전주, 어르신과 장애인이 편안한 전주를 만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는 지난 28일 전주지역 청소년 25명과 함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 '나를 찾는 아카데미' 주말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 '이색 직업체험' 운영

전주시야호학교가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전주야호학교가 제공한 이색 직업체험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다.

전주시야호학교는 지난 28일 전주지역 청소년 25명과 함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 '나를 찾는 아카데미' 주말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주말프로젝트는 올해 4회 운영될 예정으로, 상반기 주말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싶은 다양한 직업을 직접 선발하고 기꺼운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맞춤형 이색 직업체험으로 운영된다.

이번 1차 이색 직업체험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은 △금속 공예사 △주얼리 디자이너 △4차 산업 VR △방탈출 기획자 △공간 디자이너 등의 직업을 체

험했다. 청소년들이 이어 오는 6월 4일에는 2차 주말프로젝트로 △스케이트 선수 △클레이밍 선수 등 이색 직업을 체험하게 된다.

전주시야호학교는 오는 8월과 10월에는 하반기 주말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나를 찾는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야호학교(063-281-6597~8)로 문의하면 된다.

금속공예사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참여 청소년은 "늘 알고 있던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공했던 직업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